



마음과 마음이 맞닿은 하루

2025년 동아쏘시오그룹과 함께하는 동고동락(東苦東樂) 나들이

지난 11월 7일,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들과 우리 복지관의 성인발달장애인들이 용인 에버랜드로 '동고동락(東苦東樂)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동고동락(東苦東樂)'은 동대문구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두 기관이 서로의 기쁨과 어려움을 나누며 동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동아쏘시오그룹의 직원교육 프로그램 '동아멘토링'의 일환으로, 멘토(선배)와 멘티(신입사원) 62명이 함께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복지관에서는 모두 30명의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함께했는데요. 1년 동안 에버랜드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참여자도 있었고, 8년 만에 첫 나들이를 나온 참여자도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거주지역을 벗어나 먼 곳으로 떠나는 일이 쉽지 않기에, 이번 에버랜드 나들이는 참여자들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왔는데요. 임직원들의 동행 덕분에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먼 길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임직원들은 성인 발달장애인과 2:1 혹은 3:1로 짝을 이뤄 에버랜드 곳곳을 누비며 함께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도움을 주고 받으며 처음에는 어색했던 사이가 편안한 친구처럼 가까워지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분을 만나게 될지 두려운 마음도 들었지만, 막상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루를 보내다 보니 금세 마음이 편해졌어요. 서로 배려하며 친구처럼 어울렸던 즐거운 하루였어요.”
(한OO 동아쏘시오그룹 참여자)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함께 맛있는 거 먹고 놀이기구를 타면서 금세 친해질 수 있었어요. 너무 재미있는 하루였고, 다음에도 또 같이 오고 싶어요.”
(백OO 복지관 참여자)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가장 큰 힘은 결국 '마음'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눈을 맞추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삶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날의 나들이도 그런 마음들이 오가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서로 편안하게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 나들이의 풍경이 우리가 꿈꾸는 지역사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복지관은 이러한 마음이 맞닿는 만남이 지역사회 안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의 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경사로 하나가 일상을 바꿉니다”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편평한 세상 만들기’

동대문구 곳곳을 걷다 보면,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작은 ‘문턱’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쉽게 넘어설 수 있는 문턱이지만, 유아차·휠체어 이용자들에게는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장벽이 되기도 하지요. 이동약자들의 이동권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복지관에서는 동대문구 소규모 상점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편평한 세상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사업에 참여한 세 곳의 업장을 찾아, 경사로 설치 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① 서울아이약국 동대문구 답십리로69길 55

“경사로 설치 하나로, 손님들의 동선이 확 달라졌어요. 누구나 불편 없이 드나드는 공간이 됐어요.”

서울아이약국 이설 대표약사는 예전부터 고민했던 약국 정문 문턱이 이번 사업으로 해결돼 손님들의 동선과 안전이 크게 변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전에는 정문에 턱이 높아서 유모차나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기 어려웠어요. 그러나 이제는 정문을 이용하라고 편하게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경사로 설치 이후 서울아이약국은 ‘문턱 없는 약국’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업장에 쉽게 드나들 수 있게 된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장님들이 함께해 누구나 불편 없이 상점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보기



② 고려부동산 동대문구 양산로 7-1

신설동역 앞에서 29년 넘게 부동산 중개업을 이어온 고려부동산 위한 대표는 오랫동안 손님들의 ‘문턱 불편’을 걱정해왔습니다.

“사무소 앞 보도와 출입문 사이의 높이 차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특히 어르신 손님이 나가실 때 발을 헛디딜까 걱정됐죠. 전에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어르신이 방문하셨는데 문턱 때문에 직접 들어오시기 어려워 휠체어를 들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설치 이후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안전성’이었다. 출입이 자연스럽게 안정적으로 바뀐 데다, 외관 역시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린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인근 상점 점주들이 어디서 설치했냐고 물어볼 정도로 반응이 좋았어요. 상가번영회 회원도 관심을 가졌고요. 지역사회에 작은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경사로 설치하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기본이니까요. 망설이지 말고 설치하시길 권합니다.”

③ 청량리 휴대폰 할인매장 동대문구 양산로 217

청량리동에서 9년째 운영 중인 휴대폰 할인매장은 올해 경사로 설치 후 매장 접근성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전에는 휠체어 손님들이 문 앞에서 멈춰야 했어요. 어느 분은 휠체어를 두고 목발을 짚고 들어오신 적도 있습니다. 이제는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훨씬 편하게 들어오세요. 매장 이미지도 더 열린 공간처럼 보인다는 말도 많이 듣고, 약자를 배려하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천사가 아닌 친구로서'

펜대4, 출판 기념 북콘서트

지난 11월 21일 동네극장에서 북콘서트는 에이블뉴스 백중환 대표의 진행으로 6명의 작가가 본인의 글 속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이어졌는데요. 작가들의 진솔한 이야기에 함께 웃고 공감하는 따뜻한 분위기가 극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번 북콘서트는 장애를 둘러싼 다양한 경험과 이야기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었는데요. 참여한 주민들의 깊은 공감과 진심 어린 호응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천사가 아닌 친구로서」는 장애인 이웃 또는 장애인 친구가 있는 지역주민 6명이 작가로 참여하여, 서로의 관계 속에서 느낀 소중한 순간들을 진솔하게 담아낸 에세이입니다.

북콘서트는 에이블뉴스 백중환 대표의 진행으로 6명의 작가가 본인의 글 속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이어졌는데요. 작가들의 진솔한 이야기에 함께 웃고 공감하는 따뜻한 분위기가 극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사전신청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모은 이번 행사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작가들의 글 속 이야기와 메시지를 직접 듣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천사가 아닌 친구로서」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서점에서 만날 수 있는 「천사가 아닌 친구로서」

▼ 펜대4에 함께한 6명의 작가들



AI와 함께!

제1회 AI-SPORTS 대회

지난 10월 31일, AI 동트는센터에서 제1회 AI-SPORTS 대회가 열렸습니다.

북지관 AIS마트실버 프로그램 참여자 16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장노년층이 AI 기기를 활용하여 건강을 증진하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자 진행되었는데요.

참가자들은 팀을 이루어 '해피테이블'을 이용한 사진 내용 맞추기, 풍선 터트리기, 같은 그림 찾기과 같은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또 XR 스크린을 활용해 농구, 축구, 사격, 핸드볼 같은 역동적인 스포츠 경기들을 했는데요. 각 팀의 대표 선수들은 첨단 센서와 스크린을 활용해 실제 스포츠를 하는 듯한 몰입감 속에서 열띤 경쟁을 벌이고, 활동 중간 노래를 부르며 서로를 응원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편집자의 말 |

이번 달의 주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빠르고 복잡해지고, 서로에게 마음을 쓰는 일이 때로는 사치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은 결국 사람 사이에서 오가는 '따뜻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 어려운 순간에 건네는 위로와 공감, 누군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작은 진심들은 서로의 삶을 단단하고 따뜻하게 이어주는 힘이 됩니다.


이번 달에는 그런 마음이 이어지는 순간들을 담았습니다.

서로의 속도를 맞추며 하루를 함께한 에버랜드 나들이, 높은 문턱을 불편해하는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경사로 설치, 장애와 비장애의 경험을 함께 나누며 진솔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던 북콘서트까지 마음과 마음이 맞는 순간들을 기록했습니다.

작은 다정함이 세상을 한순간에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마음들이 모일 때 지역사회는 분명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이번 호가 그 온기를 여러분께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동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인 동안복지재단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을 검색하시면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